

도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올해 처음 추진... 19일까지 이메일·방문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도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했다.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및 대학 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그리고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80%)을 초과한 예술인이다. 재단에 따르면 온라인 자가 검진 및 1:1 상담 결과 고위험군 예술인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상담을 진행하

고, 지난 4월 재단과 협약을 맺은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매월 1회 10명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이메일(jb7118@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재단 5층 예술인복지증진센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김제 객사 건물 이전 복원한 ‘조경재’ 등 4건 지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5일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경재 등 4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김제를 대표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 발굴·지정

되어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제강점기 완전 소멸될 위기에 있던 김제 객사 건물을 김제조씨 문중에서 사들여 이전 복원한 ‘조경재’와 새만금 고속도로가 신설되며 철거 위기에 있던 ‘존사재’ 건물

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김제가 낳은 충절의 상징이며, 호남의 학문적 기반과 김제시역의 근원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인 백석 류중선생과 관련된 류중 묘비와 백석서원, 근대 전복서화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자 실학자로서 호남 3걸로 추앙받는 석정 이정직 선생의 묘역이 심의 되었다. 특히 ‘조경재’의 경우 완전히 소멸될뻔 않았던 김제 객사건물의 일부를 옮겨지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김제관아 건물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인 김광수 부시장은 “김제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소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분야에서도 선진적 위치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5일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해외 언론인 초청 팸투어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MICE 전문 해외 언론인 대상 공동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KTO)가 총괄 기획하고 지역 RTO 4개 기관(인천, 전북, 광주, 전남)의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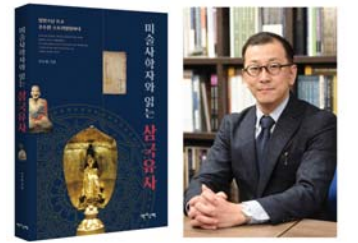
전북문화관광재단은 MICE 전문 해외 언론인 대상 공동 팸투어를 진행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협력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Meetings & Conventions 기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태국, 싱가포르 6개국 11명의 MICE 전문 언론인단은 첫날 코리아 유니크베뉴 ‘왕의 지빌’ 탐방 후 한옥 마을로 이동하여 한복 체험과 전통주 빚기, 그리고 ‘전 집’ 체험 등으로 팸투어 일정을 마쳤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국제 미시 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해외 로드쇼 참가 및 크고 작은 팸투어 추진 등 전북미시뷰로의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글로벌 전북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삼국유사 기적 미술사적으로 읽기

우석대 주수완 교수, '미술사학자와 읽는 삼국유사' 출간

우석대학교 주수완(경영학부) 교수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사건의 진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미술사학자와 읽는 삼국유사'를 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에서 삼국유사에 소개되는 기적이 실제인지, 허구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닌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떤 사건을 기적으로 만들어서 민중을 선동하려 했던 통치자들의 의중과 이러한 사건을 기적으로 믿고 싶었던 민중들의 마음을 미술사학자의 입장에서 풀어내고 있다. 주수완 교수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다양한 기록과 유물 등을 바탕 삼아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측해 보았



으며, 당대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진지하게 재구성했다”며 “지금의 우리도 이따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한지작품전 ‘인식의 경계’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한지작품전 ‘인식의 경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한지를 자르고 꼬아서 선으로 만들어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한지 조형작가 김현지의 작품 5점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김현지 작가는 정적인 한지의 면을 흐트러트리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선(지끈)으로 변화시켜, 정형화된 사회적 외면에 감춰져 있는 다채로운 내면을 표현한다. 한지로 만든 선은 잔잔한 물위에 던진 돌이 만들어

내는 파동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우리의 의식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한지의 따스함, 선의 역동성과 경쾌함은 동심원과 어우러져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홍진근 관장은 “전통재료인 한지를 재해석한 현대 작품을 보여주는 한지작품전이 우리가 전통 문화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도민에게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최미정 작가 성화 작품 기증식 가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4일 학생 생활교관 2층에서 최미정 작가의 성화 작품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 명문 사학을 지향하는 전주비전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을 선교관 2층에 상시 전시하기로

했다. 정삼모 총장은 “최미정 작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을 준다”며 “우리 교직원들과 외부들이 작가의 작품 의도를 잘 이해하며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